

한전 포천지점 고객중심 서비스 강화

올 하반기 저소득층 조명기기 지원사업 실시

한전 포천지점(지점장 이영승)은 고객중심의 경영과 지역사회와의 유대강화를 위해 올 하반기 이통장과의 담당간부 Hot-Line 운영을 비롯해 장날 현장서비스 활동 시행, 저소득층 조명기기 지원사업 등을 실시한다.

파트별 지원인력 8명으로 9월 일동면과 포천동, 10월 소흘읍과 영북면 5일장을 순회하며 전기관련안내 및 중계처리, 홍보엽서와 기념품을 배부할 예정이다. 또 민원처리에 관한 만족도를 사후에 체크하는 Happy-Call을 시행할 계획이다.

올·면·동 월례 이·통장협의회에 참석해 한전에 관한 주민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특히 전기관련 민원을 수렴해 해결해 줄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전 포천지점 간부들에게 담당 읍면동을 지정해 운영한다.

▶저소득층 조명기기 지원사업
포천관내 저소득층과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을 대상으로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 및 불량설비 간이보수를 실시한다. 대상자 선정은 포천시와 읍·면·동사무소에 추천을 받아 시행한다. 지난 2005년에는 선산동과 군내면 지역에서 204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했고 2006년에는 영중면과 일동면, 창수면 지역에서 316가구, 2007년 상반기에는 300가구를 실시한 바 있다.

▶지역사회 행사에 적극 참여
한전 포천지점은 지역사회와의 유대강화를 위해 포천시 이·통장협의회와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주최하는 행사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또 포천시민의 날, 역사꽃 축제, 국토대청결운동 등 지역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전 포천지점은 직원들의 서비스 마인드 향상을 위해 매주 월요일 오전에 전화응대 방법과 고객응대 및 고객분문 교육을 실시한다. 또 9월에는 6월에서 8월까지의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여론조사를 실시해 업무에 반영할 계획이다.

▶장날 현장서비스활동 시행
한전 포천지점은 수요관리파트와

▶이·통장 담당간부 Hot-Line 운영
한전 포천지점은 포천지역

▶하반기 전력시설 산업시찰
9월과 10월경 일동면과 창수



한전 포천지점은 고객중심의 경영과 지역사회와의 유대강화를 위해 각종 대민 서비스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포천소방서 신바람 나는 직장 造成

個別면담 통한 의견수렴 근무여건 개선

포천소방서(서장 이보형)는 소방공무원 제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개월에 걸쳐 소방장이 하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 신상문제를 복지·근무환경 분야에 이르는 사항까지 전반적인 개선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의견수렴은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각 부서별 직접 방문하여 1:1 개별면담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주요 건의사항은 ▶비번인원 동원 최소화 ▶소방감사 당번 일 실시관련 명확한 지침 요구 ▶단력적인 순번휴무 시행 ▶안전센터 행정업무량 감소 ▶부서별 부족한 인력 확충 ▶내·외근 순환보직 ▶노후정사 개·보수를 통한 근무환경 개선 등 실질적 근무여건 개선과 관련한 내용이다.

포천소방서는 총180건에 이르는 개선의견을 토대로 소관업무별 검토를 거쳐, 소방서 자체 추진이 가능한 56개의 개선과제를 선별하여 실질적 근무여건 개선 효과 거양을 위한 대책을 마련 시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을 목표로 설정한 '소방공무원 복지근무 환경 개선 3개년 계획'과 연계하여 출동대기실 개선, 체력단련실 설치 및 보강 등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으로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통한 고객감동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천 노력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대책으로 ▶각종 보고문서 통·폐합 등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행정업무량 48% 감소) ▶행사동원 개선안을 통한 불필요한 비번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소방서는 직원들의 근무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2개월동안 직원과의 대화시간을 갖고 전반적인 의견을 개진했다

시민의 관심과 계획적 研究 필요

한내울포럼, 포천시 문화재 효과적 보존방안 토론회



한내울포럼은 8월 24일 포천시 문화재 관리실태와 효과적인 보존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갖는다

한내울포럼(공동대표 송순석 윤순옥 이희용)은 8월24일 '포천시 문화재 관리실태와 효과적인 보존방안'이라는 주제로 네 번째 정기토론회를 갖고 포천 시민의 관심과 계획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문환 회원의 사회로 이희용 공동대표가 발제에 나섰고 송순석 공동대표, 장승호 대변인, 이은미 총무가 토론자로 나섰다.

이날 발제에 나선 이희용 공동대표는 포천시 문화재 실태에 대해 ▶자료소실, 복원발굴의 미진 ▶정신의 실질적 연구가 부족 ▶예산집행의 비효율성 ▶문화유산과 지역축제 연계된 관리가 필요 ▶지역의 특성과 돌보일 수 있는 정신이 함양된 프로그램 부재 ▶문화재보호지역내의 불법건축

이나 인허가의 철저한 이행 ▶문화재 주변 정비와 진입로 확보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개선방안에 대해 시민의 관심과 계획적 연구의 지속, 수집된 사료의 체계적 정립, 올바른 역사교육과 정신의 계승, 대중매체의 활용과 향토사 박물관 설립의 필요성, 문화재지도와 주변 진입로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송순석 공동대표는 조성호 포천향교 청년유도회장에 대신 발표하게 하여 포천유림의 현재 활동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토론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날 조 회장은 포천향교가 고전하고 있다고 밝히고 향교자체의 재산을 활용하지 못해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다. 특히 다른 종교단체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데 유림재산에는

모든 세금이 부과돼 재산관리에 어려움이 뒤따른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1년에 1회 성년식을 개최하는데 참여하는 젊은이들이 없어 군부대나 대진대나 경북대에 참가자를 의뢰하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참석자 토론자들은 조 회장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안타까움을 밝히고 한내울포럼과 함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지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장승호 대변인은 토론에 앞서 정선중학교 출신이라며 정선이라는 한 대목을 선보이며 강원도 정선군에서는 문화재에 대한 애착심을 갖고 어릴 때부터 교육에 나서는데 포천에서는 이와 같은 교육이 너무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미 총무는 토론회에서 포천시의 형성, 생산력의 증가에 따른 합리적 농업 경영 단위로서의 두락계가 전면으로 나타났다. 시장의 발달과 시장을 위한 생산은 상호 작용하면서 축적되었고 상품 유통을 매개하는 보부상, 객주 등의 상인들이 성장하였다. 상업 자본의 역할은 처음에는 봉건제의 붕괴 작용으로 한정되었다. 그러나 점차 생산 활동과 결부되면서 자본주의의 씨앗이 되었다. 부상대기들이 토지에다가 자본을 투자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상업자본이 토지자본으로 변하기도 했으나 토지에 상업자본이 침투하면서 토지를 가지지 못하게 된 많은 농민들은 생계를 위해 자기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팔게 되었다. 이렇듯 조선 후기에 자본주의적 요소가 우리 생활에 존재하기 시작하였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목회단상

함께 나누는 공통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눔만 큼 아름다운 일도 없다 그래서 "슬픔은 나누면 반으로 줄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로는 늘어난다."는 이야기를 한다 그러나 막상 그런 나눔의 현장에선 인색한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함당 하다는 말씀을 하였는데 이전 목사님은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였고 지금 목사님은 그 말을 하면서도 몹시 괴로워 하며 우리들의 고민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 같습니다. 괴로움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태도는 남에게 큰 신뢰를 불러일으킨다. 예수께서는 미움이 아닌 용서를 증오보다는 사랑으로 허물을 덮으라고 하시면서 나눔의 관계를 쌓아라고 말씀하신다. 아울러 성서는 이렇게 교훈하신다.



김창성 내촌감리교회 목사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출교 설교하기를 "여러분은 이런 미지근한 믿음으로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이 목사가 얼마 후에 교회를 사임하고 새 목사가 부임해 왔다. 그런데 이 분도 역시 출교 설교처럼 설교하기를 미지근한 믿음을 가진 여러분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디모데 전서 6장18절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알고, 그 이유를 물었더니 그 교회 대표(수석장로)는 이렇게 대답했다. "두 목사님이 모두 우리들이 지옥에

함당 하다는 말씀을 하였는데 이전 목사님은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였고 지금 목사님은 그 말을 하면서도 몹시 괴로워 하며 우리들의 고민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 같습니다. 괴로움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태도는 남에게 큰 신뢰를 불러일으킨다. 예수께서는 미움이 아닌 용서를 증오보다는 사랑으로 허물을 덮으라고 하시면서 나눔의 관계를 쌓아라고 말씀하신다. 아울러 성서는 이렇게 교훈하신다.

디모데 전서 6장18절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알고, 그 이유를 물었더니 그 교회 대표(수석장로)는 이렇게 대답했다. "두 목사님이 모두 우리들이 지옥에

문의) 031-532-2489

포천과수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획득

친환경농산물품질인증을 통한 安定性 확보



포천사과연구회와 포도연구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친환경 과실생산에 전원이 저농약농산물 품질인증을 받았다

포천사과연구회(대표 이진영), 포천포도연구회(이항순)는 2007년 포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친환경과실생산 시범사업에 참여, 36농가 전원이 마지막으로 저농약농산물 품질인증농가 대열에 합류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지도하는 사과, 포도를 생산하는 과수연구회소속 226농가 전원이 저농약 품질인증을 획득하게 되어 명실공히 친환경 과수재배 지역으로서 포천의 지역이 미지 제고기반을 이뤄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규)는 생물적 방제 요소인 성페로몬, 교미교란제, 잡초방지제, 토양 개량제(맥반석) 등 친환경자재를 전 농가에 공급, 정확한 병해충 방제처방을 통하여 년 15회 이상 화학농약에 의존하던 사과병해충 방제방식을 9회방제로 줄이고, 제초제 없는 포도과원 만들기를 실현했다.

포천사과연구회와 포도연구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지도하는 사과, 포도를 생산하는 과수연구회소속 226농가 전원이 저농약 품질인증을 획득하게 되어 명실공히 친환경 과수재배 지역으로서 포천의 지역이 미지 제고기반을 이뤄냈다. 포천사과연구회와 포도연구회는 생물적 방제 요소인 성페로몬, 교미교란제, 잡초방지제, 토양 개량제(맥반석) 등 친환경자재를 전 농가에 공급, 정확한 병해충 방제처방을 통하여 년 15회 이상 화학농약에 의존하던 사과병해충 방제방식을 9회방제로 줄이고, 제초제 없는 포도과원 만들기를 실현했다.

이반 친환경인증으로 포천시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특별기고

통일 후 토지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15

조선시대 토지제도

서익석

대성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에 대해 일정한 세미를 징수하고, 징수한 공납미를 관에서 지정한 공납 청부업자에게 지급하여 공이나 관에서 필요로 하는 공물을 조달해 하자는 방법이었다. 미곡 대납제는 전란 후에 부족한 정부 양곡을 보충하여 민생을 안정시키려는 의도가 있었으며 종래에 불법적으로 행해진 공납 청부의 관행을 일정한 규제 하에서 합법화시키자는 의미도 지녔다.

미곡 대납제는 율곡 이이가 선조에게 바친 통호문답에서 상소한 수미법에서도 나타나 있었으나 이러한 주장은 임진왜란 이전에는 시행되지 않았고, 광해군 원년에 이원익의 주장에 따라 우선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었고, 그 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를 거쳐 숙종 34년에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각종 토산물 대신에 일률적으로 징수한다는 의미에서 이 제도를 대동법이라고 불렀으며 징수되는 미곡을 대동미라고 하였다.

대동법은 우리나라 자본주의에 있어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대동법(조세를 계산하기 위한 논밭의 면적 단위)에 달하던 토지가 광해군 시대에 5만 결로 대폭 줄어들어 조세 수입이 감소하였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공물을 미곡으로 대납시켜 공납의 전세화를 구상하였다. 단위 경작 면적

광범위한 계층의 수공업자를 등장시켜 봉건 왕조의 수요를 충당하던 종전의 관영 수공업이 사영 수공업으로 대체하는 효과를 가져왔고, 이에 사영 수공업이 비약적으로 성장하였고 특정 물품의 전매권을 가진 시전이 급속도로 성장하였다.

전국의 농민 수공업자들이 빈번한 접촉으로 시장을 위한 생산이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봉건적 조세 수취 체제로서의 결부제는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으며 교환 경제의 발달, 사유 재산의 형성, 생산력의 증가에 따른 합리적 농업 경영 단위로서의 두락계가 전면으로 나타났다. 시장의 발달과 시장을 위한 생산은 상호 작용하면서 축적되었고 상품 유통을 매개하는 보부상, 객주 등의 상인들이 성장하였다.

상업 자본의 역할은 처음에는 봉건제의 붕괴 작용으로 한정되었다. 그러나 점차 생산 활동과 결부되면서 자본주의의 씨앗이 되었다. 부상대기들이 토지에다가 자본을 투자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상업자본이 토지자본으로 변하기도 했으나 토지에 상업자본이 침투하면서 토지를 가지지 못하게 된 많은 농민들은 생계를 위해 자기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팔게 되었다. 이렇듯 조선 후기에 자본주의적 요소가 우리 생활에 존재하기 시작하였다.



포천시 농사정보 ⑦

9월 상순에 실시할 농작업

1. 벼농사
가. 후기 논 관리 및 벼 적기 수확

관리를 잘하여 후기 수량을 높도록 한다.

▶논물은 완전히 찾아진 다음 다시 물을 대어 주는 방법을 실시하여 풀의 활력을 높여 주도록 한다.

▶붉은 고추는 가능한 빨리 수확하여 병해충 피해를 방지한 다음 고추가 잘 자라도록 하며, 수확한 고추는 적온 건조로 품질을 높이도록 한다.

▶고춧, 윤광벼 등 내년도 사용할 벼씨를 생산하려는 포장에서는 피, 잡초, 잡수 등을 철저히 제거하여 순도 높은 벼 종자를 생산토록 한다.

▶배추는 본 잎이 3~4개 정도 자랐을 때 본 밭에 옮겨 심는데 심는 간격은 여건에 따라 알맞게 조절하여 깊게 심지 않도록 하고, 생육 초기에 예찰을 강화하여 해충 방제를 적기에 하도록 한다.

▶벼를 적기에 수확하여 완전미율을 높이도록 한다. - 극중생종:이삭 갠 후 40일(조생종:이삭 갠 후 50일)

▶벼를 적기에 수확하여 완전미율을 높이도록 한다. - 극중생종:이삭 갠 후 40일(조생종:이삭 갠 후 50일)

▶벼를 적기에 수확하여 완전미율을 높이도록 한다. - 극중생종:이삭 갠 후 40일(조생종:이삭 갠 후 50일)

▶벼를 적기에 수확하여 완전미율을 높이도록 한다. - 극중생종:이삭 갠 후 40일(조생종:이삭 갠 후 50일)

2.채소
가.고추

▶고추의 생육이 부진한 포장에는 요소 0.2%액 또는 제4종 복합비료를 뿌려 주는 등 포장

이한설 포천시농업기술센터 기술총괄과장